



5월까지 대두박 공급 타이트

(2013.4.24. 로이터통신)

원제: SOYMEAL SUPPLIES TO REMAIN TIGHT UP TO MAY -OIL WORLD
24-Apr-2013 00:41

Oil World의 유지작물 전문가는 남미에서 올해 신곡 대두의 수출이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세계 대두박 공급이 5월까지(늦으면 6월까지)는 타이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물 사료로 쓰이는 대두박의 주요 소비자들은 타이트한 공급의 완화를 기대하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신곡 대두 수출이 많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2012년 9월에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었다.

Oil World는 3월의 수출 감소로 수입국에 4월,5월에 도착하는 대두와 대두박 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즉시 인도가 되지 않아 대두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남미에서 여전히 선적이 지연되고 있어 유럽 시장은 물량 부족을 겪고 있다. 6월 전까지는 노트르담 등 유럽 곳곳에는 주목할 공급 개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